

Art

아트인컬처
December 2014

Special Feature /
한국의 회화 13인×13인
Matching & Mapp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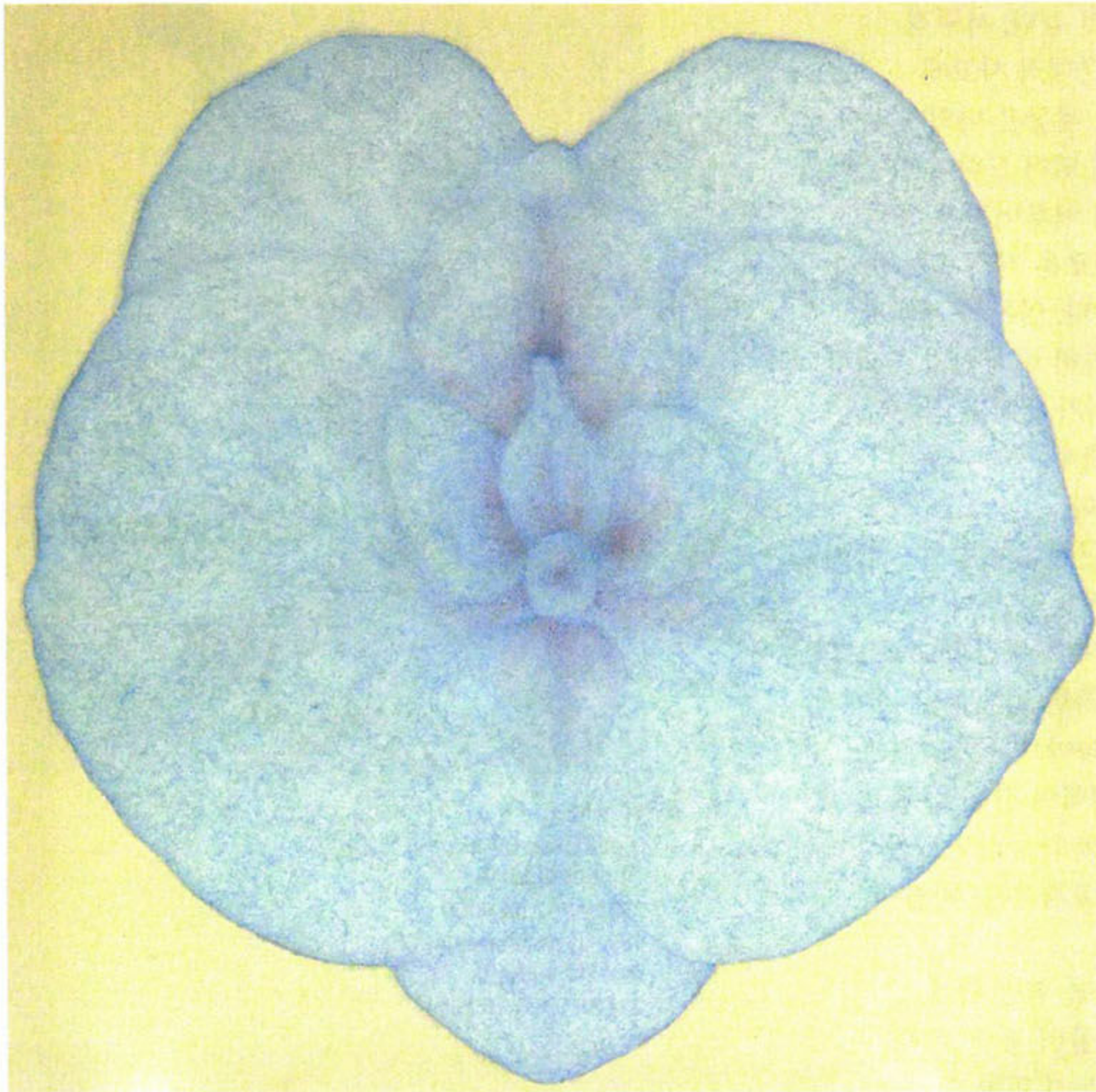
Abroad/
요코하마트리엔날레
타이베이비엔날레

Market/
런던 Frieze, 파리 Fiac

Theme/
독립 출판, 세계 지형도
생산부터 유통까지

Essay/
단색화 '촉각적 보기'

김홍주 → 함명수



김홍주 <무제> 캔버스에
아크릴릭 112×112cm 2010

세필화의 아날로그적 감수성

나는 내 그림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막막한 생각이 든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내 그림에 대한 비평문을 죽 살펴보았다. 내 그림에 대한 비평적 키워드는 대개 그림과 오브제, 그린 곳과 그리지 않은 곳, 그림의 안과 밖 등과 같은 것들이다.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모두 허구처럼 느껴진다. 나는 거울 그림을 시작하면서 선택하여 사용했던 세필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, 이 세필 기법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더구나 이 조그만 붓을 가지고 주로 큰 그림들에 매달려 왔는데, 침침한 눈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내 자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.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 그림을 그냥 세필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. 그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할까?

이러한 나의 작업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젊은 작가 중 한 사람이 *함명수이다. 그는 가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제안하기도 할 정도로 내 그림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. 함명수는 또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새로운 매체들을 포기하고 오로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가지고 그리기에 매달려 왔다. 이렇게 그리는 작업이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만한 것 같다. / 김홍주